

노사상생 기반 사회대통합 ‘일자리 창출’ 결심

GGM 신차 양산 의미와 과제

광주형일자리의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오는 15일 AX1 ‘캐스퍼’ 신차를 출시한다. 노사 상생을 기반으로 한 사회대통합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일자리’가 낫을 올린지 2년3개월만의 결실이다. 광주형일자리란 한국경제가 직면한 고용·저효율 구조와 대립적 노사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국경제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3년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을 건립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사회통합형 일자리

광주형일자리란 노동자임금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주택이나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여주는 일자리다. ‘반값 임금’을 통해 일자리를 배로 늘리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다. 적정임금·노동시간·노사 책임경영·원하청 관계개선 등 4대 원칙을 핵심과제로 한다.

◇의미

광주형일자리 첫 번째 모델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최초의 모델이다.

GGM은 기존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에서 탈피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에 적극적 역할을 부여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부품 공장의 추가 유치, 관련 기

업의 간접 고용효과까지 추산하면 약 1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일자리는 노사 대화합의 결과물이다”며 “GGM은 일자리 창출과 한국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시장 대응

지난 4월 준공된 GGM 자동차 공장은 빗그림산단에 60만4,338㎡ 규모로 차체, 도장, 조립공장으로 구성됐으며 연 10만대 생산능력을 갖췄다.

자동차 공장은 지속가능성과 수익성, 확장성 등 3대 비전을 목표로 친환경, 디지털, 유연성을 컨셉트로 건설됐다. 초기에는 수익성을 고려해 내연 SUV

고비용·저효율 구조와 대립적 노사관계 극복 23년만 공장 건립 지속가능 모델·경제 활성화 위탁생산업체 자리매김·신차 성공 등 과제

경차를 생산하지만, 미래 친환경차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 위탁 생산 전문기업이라는 점에서 최첨단 설비와 유연 생산 시스템은 향후 전국 최초의 노사 상생형 모델이라는 기업 구조와 함께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

GGM은 2019년부터 정규직 539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1교대 운영인력으로 일반직 150명, 기술직 381명, 촉탁 8명이다. 이중 신입은 375명이다.

지역별로는 광주 450명, 전남 48명,

타지역 41명이다.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걸맞게 GGM은 전체 채용인원의 92.4%(498명)를 광주·전남지역인재로 선발했다. GGM은 2교대 기술직 27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협력사 간접고용까지 포함하면 1만 2,000여개 일자리가 만들어져 지역 청년들이 광주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 건설 당시에도 투입된 44개 장비업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업체의 참여율이 98%로 42개 업체에 달한다. 투입 인력도 연인원 13만7,200여명이다. 중 지역 인력이 10만9,350여명으로 79%를

차지해 지역 업체와 상생과 동반성장을 실현했다.

◇지속가능성 확보 관련

GGM 성공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위탁생산업체로 인지도와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

광주시도 이런 부분에 주목하고 GGM 2대 대표 선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달 차담회에서 “GGM이 세계적인 위탁생산업체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차 판매실적도 변수다. AX1의 판매 실적은 GGM의 앞날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한 수량만큼의 판매에 성공해야 위탁 물량 확보를 이어갈 수 있고, GGM의 수익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광주형일자리의 핵심인 노사상생 유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노사 상생을 전제로 만들어진 일자리인 만큼, 노사가 갈등을 겪으면 사업의 핵심 동력을 잃게 된다.

/황애란 기자

전 전남도의원 108명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

전 전남도의원 108명은 1일 “내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대표는 도지사 시절,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목표로 가고싶은 섬가꾸기 등 굵직한 미래 전략을 실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빛가람 에너지밸리와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 건설 등 전남발전의 성장동력 확보에도 전력을 다했다”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5선 국회의원, 여당 대표 등 국회와 정부, 중앙과 지방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이 전 대표가 호남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양한 갈등에 지치고 분열된 우리사회를 치유하고 이념과 지역을 넘어 어느 한쪽에 고립되지 않고 누구보다 넓게 확장할 수 있는 후보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세운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철학이 단절되지 않고 계승할 후보가 이 전 대표다”며 “본선에 오르면 불안한 후보보다는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 이기는 후보인 이낙연을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의회 임시회 개최

김영록 전남지사가 1일 전남도의회 제3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 실·국장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유망 중기 ‘스타트업’ 육성

15개사 선정...3년간 최대 4억 맞춤 지원

전남도는 기술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 중 15개사를 올해 전남형 스타트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선정 기업은 그린에너지 5개사, 바이오

헬스케어소재·첨단운송기기부품 각 4개사,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2개사 등이다.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고루 분포했다.

지역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전남PM

(Project Manager)을 매칭하고, 기업 성장전략 계획 수립, 연구개발(R&D) 기획 등 프로그램을 기업별로 3년간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내년엔 연 2억 원 이내로 R&D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길용현 기자



정기 브리핑

소병철 “동물 안락사 마취제 의무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일 동물 안락사를 시행할 때 인도적 처리를 위해 ‘마취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취제 사용에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 약제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해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현행 분양공고 기간을 10일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리고, 지자체는 동물의 보호를 동물판매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동남·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육청에 1차 필기 시험 위탁을 의무화해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사립학교 교사 선발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은 임용관재인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공개 전형 등을 통해 임용



하고, 대통령령에 의해 공개전형 등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채용의무는 아니다.

윤 의원은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이 이뤄져야만 사학의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광주광역시 선점 맛집

다미정의 밥도둑 ‘구운 보리굴비’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 최고의 정성!

‘다미정 보리굴비’는 엄선된 보리굴비를 전남 영광군 법성에서 천혜의 해풍으로 건조하였습니다.
‘다미정 보리굴비’는 다미정에서 직접 구워 찐 굴비와는 달리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고, 맛이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겠습니다.

보리굴비정식

구운 보리굴비 선물세트

‘다미정’에 오시면 정갈한 밑반찬과 함께 맛있는 보리굴비정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 모든 굴비는 주문을 받은 후 구워 1마리씩 진공포장 하여, 아이스팩과 함께 선물가방에 담아 배송합니다)

다미정

예약 및 구입 문의 062) 682-551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화로 128번길 73 (풍암동 1153-14)